

반려동물 산업 육성 본격화

임실군, 글로벌대학30 선정 원광대와 업무협약 체결

임실군이 글로벌대학30에 선정된 원광대와 손을 맞잡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군은 최근 글로벌대학30 공모사업에 선정, 생명산업의 글로벌 거점대학의 발판을 확보한 원광대와 반려동물 산업의 전문 인재 양성에 손발을 맞춘다.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도

이미 군은 앞선 3월 원광대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글로벌대학30 선정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함께했다.

당시 양 기관은 임실군의 반려동물 관련 자원과 대학의 인적자원, 아이디어를 접목한 반려 산업 육성을 통해 상생·혁신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합의했다.

특히 임실군과 원광대학교는 △반려동물 특성화 캠퍼스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반려동물지원센터 활성화 관련 사업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 등 반려동물 관광 관련 협력 △글로벌대학30 관련 사업 추진 협력 △기타 지역 정책연구 및 국제사업 발굴 등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협력·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에 발맞춰 군은 지난 7월에 K-펫·치즈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에듀케어 도시, 임실'을 비전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되기도 했

다. 현재 군은 반려동물 및 치즈산업 연계 우수 인재 육성 및 지역 정주 촉진을 목표로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원광대와는 글로벌대학30과 교육발전특구를 연계하여, 반려동물 특화단지 조성 중인 오수면 일원에 반려동물 케어 및 행동 교정 교육 등 반려동물 특성화 캠퍼스인 반려누리학습센터를 구축, 현장 실습형 교육과정 운영 및 반려동물 특화 체험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수의견설화를 살려 반려동물의 글로벌 메카를 목표로 하고 있는 오수지역의 특성화고인 전북벡고등학교와 연계한 원광대 반려동물 학과 운영 등도 모색할 방침이다.

군은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오수의

견관광지를 전국 최초로 반려친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오수펫후모공원에 이어 반려동물 지원센터인 오수반려누리가 준공된 가운데 180억원 규모의 세계명견테마랜드 조성, 반려동물 동반 캠핑장 조성(20억원), 오수의견관광지 정비사업(50억원) 등도 착착 진행 중이다.

올해로 39회째를 맞이한 의경문화제를 세계적인 도그쇼로 발전시키고,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 중인 오수 제3농공단지는 반려동물용품과 사료, 의약품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유치하여 반려동물 특화산업단지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오수도시재생생활화사업(233억원)을 통해 반려동물 특화거리, 반려리플, 반려하우스 등 반려친화도시로 조성하여 1,500만 애견인들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군은 이 같은 기반 시설을 토대로 원광대와 반려동물 산업을 통한 생명산업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원광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반려동물 특성과 지역 조성 및 지역 특색 맞춤형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K-펫·치즈산업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육의 도시 임실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저소득 청년 재정적 자립 돕는다

남원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대상자 42명 선정

남원시는 저소득 청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대상자 42명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130명이 신청해 선정 기준에 따라 42명을 최종 선정했다.

이 사업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월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만39세 이하 청년을 대상

으로 매월 10만원 이상 3년간 저축하면 하여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원, 100% 이상은 10만원을 매월 지원하며, 현재 남원시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의 7개 사업을 추진해 200여 명에게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허인선 주민복지과장은 "지역 내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기초 자산을 형성해 재정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추석 명절맞이 '순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확대

순창군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9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고 추석 명절 대목 기간 동안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지류, 모바일, 카드 관계없이 개인당 월 10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할인율은 기존 구매금액의 10%로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지류상품권은 관내 농협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등 27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카드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구입 가능하다.

아울러, 군은 오는 12월 2일부터 모바일과 카드 순창사랑상품권의 할인 방식을 기존 생활인에서 후 캐시백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



순창군

없이 전액을 지불하지만, 사용 시 결제 금액의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충전할 경우 10만원을 전액 지불하고, 사용 시 최대 1만원까지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과 국비 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조치로, 신속한 소비를 유도하고 부정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변경된 후 캐시백 방식에서는 개인당 월 최대 7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기존 지류 상품권 1만원권은 11월 말까지만 판매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노인일자리 선도모델 자원순환단사업 '순향'

순창군, 노인 일자리 창출·환경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아

순창군의 '노인일자리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환경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며 순항 중이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순창시니어클럽(관장 이효)이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이 사업은, 지역 내 버려지는 폐페트병을 수거하여 가공 과정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활용한 사업이다.

자원순환단은 수거한 폐페트병을 세척, 건조 후 자원순환기를 통해 작은 조각(플레이크)으로 가공해 만들어 파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 플레이크는 의류용 합성섬유나 공업용 물품의 원료로 사용되며, 버려질 뻔한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이 사업에는 10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11개 읍·면에서 매일 약 70~80kg의



폐페트병을 수거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3.5톤의 폐페트병이 수거되어 약 35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으며, 10월 사업 종료 시까지 약 350만원의 수익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자원순환단 사업은 단순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넘어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실제로, 활동적인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마을 환경 정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시키고, 발생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자연·지역친화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어르신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는 어르신들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늘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자원순환단 선도모델 사업량 100개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2,933개의 노인일자리 운영에 민선 8기 3,000개의 노인일자리 운영 목표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순창시니어클럽은 개소 1년 만에 보건복지부 주관 '2024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 지리산 흥부골 포도축제 7일 개최

남원시 아영면 관계지는 오는 7일 지리산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2024 지리산 흥부골 포도축제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축제는 지리산 흥부골 포도작목회와 지리산농협이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남원시가 후원, '예향에 술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축제의 대표 상품인 지리산 흥부골 포도는 일조량과 강수량이 균형을 이뤘 포도의 당도와 풍미를 높여 맛과 향이 뛰어나고, 다양한 포도 품종 재배로 소비자에게 특색있는 농산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신선하고 달콤한 포도를 직접 맛보고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를 함께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도 주어진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농기센터, 딸기 꽃눈 현미경 검사 실시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는 딸기 재배의 성공적인 생육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딸기농가를 대상으로 화아분경 검정(딸기 꽃눈 현미경 검사)을 실시한다.

이번 검정 확인은 딸기 생육 초기에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9월 6일과 10일 양일간 남원시 모든 딸기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화아분경은 꽃눈이 미분화된 묘를 일찍 심을 경우 꽃대가 늦어 수확이 늦어지고, 적기보다 늦게 심을 경우 고품질 딸기를 수확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부 확인은 매우 중요하며, 검정은 딸기의 생장 초기 단계에서 꽃눈(화아)의 발달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를 통해 농가는 딸기의 생육 시기에 맞춘 적기 식재가 가능하며, 수확량 증대와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센터는 이번 검정을 통해 관내 딸기 농가가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검정은 테스트베드에서 실시해 각 농가에 맞춘 맞춤형 관리 지침을 제공할 예정으로 검정을 희망하는 농가는 센터(063-620-8009)로 신청하면 되고, 검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 오수지구대,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집중 홍보

임실경찰서(서장 최규은) 오수지구대에서는 관내 마을 경로당 및 노인정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들 대상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

이번 활동은 최근 들어 노인 보행자 및 전동차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매일 순찰 팀장을 중심으로 지역별 경로당,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어르신 대상 보행자 3대 안전수칙 등 교통안전교육을 펼치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이 운행하는 이륜차 및 전동차에는 시인성이 높은 야광반사지 및 형광커버를 직접 부착 및 배부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집중 추진 중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전주매일 캠페인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누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